

“생생한 고민·경험 담긴 Q&A, 리포터's PICK 유용”



거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녀
대1



구독 기간
8개월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올해 아이가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동안 두 아이의 대입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교육 이슈를 검색하다 보니 <내일교육> 기사를 자주 보게 됐죠. 저는 초·중 학생 대상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2028학년 대입은 저희 아이 때와는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 기준이나 앞으로 바뀌는 입시의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독을 시작했어요.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리뷰’ 부터 꼼꼼히 읽고 있어요. ‘위클리 테마’와 인터뷰 기사의 취재 후기를 보는 것 같아 색다르고 재밌어요. 학부모의 현실적인 고민에 답하는 Q&A 코너도 실제 학부모와 상담할 때 많이 참고합니다. 매주 학생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활동이 담긴 ‘에듀 캘린더’도 꼭 챙겨 봅니다. 무엇보다 2028 대입 개편이나 변화하는 수능·입시 흐름을 깊이 있게 다루는 ‘위클리 테마’는 가장 눈여겨보는 코너예요. 최근 신설된 ‘리포터's PICK’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돈내산’으로 생생하게 소개해줘서 도움이 됩니다.

요즘 학생 교육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전에 비해 낮아진 문해력이 정말 큰 문제로 느껴져요. 이 정도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한 부분을 학생이 생소하다며 질문할 때면 심란하죠. 문해력은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학습의 바탕이잖아요. 초·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독서 습관을 쌓아야 하는데, 갈수록 책을 멀리하는 아이들이 많아져 고민입니다. 학부모 중에는 “우리 아이가 과학을 정말 싫어하는데 수능 선택 과목이 폐지돼 어찌죠?”라며 과학 공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어요.

〈내일교육〉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위클리 테마’에서 중학생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더 많이 다뤄주면 좋겠어요. 특히 많은 학부모가 고교학점제 기반의 고등학교 생활이나 실제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고등학교에 잘 적응하려면 중학생 때부터 어떤 학습 태도와 습관을 길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기사도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의 문해력에 도움이 되는 독서 방법도 깊이 있게 다뤄주세요. @

Reporter's A/S

과학 공부를 두려워하는 학생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기사입니다. 2028 수능부터 탐구 영역은 〈통합과학〉 〈통합사회〉에서만 출제하는데요. 특히 과학 공부에서 암기력보다 자료 해석 능력·문해력·사고력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해줍니다. 중학교 과학과 고교 〈통합과학〉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왜 중학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한지 쉽게 짚어줍니다. 탄소중립·전기차·시 센서처럼 일상과 과학 개념을 연결한 사례도 담았어요.



본지 1208호
'개념 연결·문해력 필요한 〈통합과학〉
중학생을 위한 과학 공부법' 기사 보러 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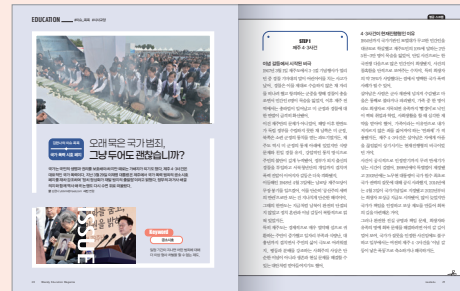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1225호

ISSUE INTERVIEW_ 강력계 이대우 형사 청소년 범죄 사소한 일탈에서 시작됩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청소년 범죄 사건을 다룬 이대우 형사의 시선으로 풀어낸 사회 문제 이야기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1223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오래 묵은 국가 범죄, 그냥 두어도 괜찮습니까?

“평소에도 ‘이슈 콕콕’을 즐겨 읽어요. 특히 이 기사는 제주 4.3사건이 아직 진행형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공소시효·형벌 불소급 원칙 등 사회 교과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 지어 깊이 있게 다룬 점이 좋았습니다.”